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조직 및 활동

최시룡

가톨릭병원협회 총무부장

가톨릭의대 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 의료사업에 가톨릭의 진출은 이조(李朝) 철종(哲宗) 10년(1859년)경으로 볼 수 있으며 동년 11월 7일 우리나라에서 포교사업을 하던 외국 신부로 부터 포교성장(布教省長)에게 보낸 보고서 가운데 「금년 여름 부터는 읍내에 약국을 설치하여 죽게된 외인 아이들을 구제한다」는 취질이 있다.

이것으로 큰 읍에 약국을 차리고 교우와 외인들을 구료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 이후 가톨릭은 전도사업으로서 고아후호, 복음전도 및 육영 사업에 더욱 힘써 왔으며 때로는 시약소(施藥所)를 설치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 가장 뚜렷한 예로서 서울에 명동천주교회가 신축된 후 그 안에 성바오로 수녀원을 만들고 수녀원의 부속 사업으로 보육원과 시약소를 경영하였으며 이 시약소가 1937년 정식 성모병원으로 진료를 개시하고 이것이 다시 현재의 가톨릭 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이 되었다.

2. 조직과 기능

현재 14개 교구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7개의 병원과 33개의 의원 및 진료소

등 모두 60개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병상수는 3,700개로 전국 총 병상수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또 660명의 의사, 1,065명의 간호원, 300여명의 의료기사 그리고 사무직등 모두 5,000여명의 직원이 의료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16명의 신부와 360명의 수녀가 봉사하고 있다.

1967년 7월 가톨릭 병원협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가진 후 9월 22일에는 가톨릭 병원 대표 23명이 가톨릭의대장당(문화관)에 모여 회칙을 통과시키고 초대 회장에 양기섭(梁基涉)신부를 선출하였다. 회칙에 명시한 대로

- 1) 의료사업을 통하여 사회와 밀접한 접촉을 가짐으로써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2)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의료인의 정신 함양을 도모한다.
- 3) 의료사업에 수반되는 인적자원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학술적 및 기술적 능력의 함양을 기한다.
- 4) 의료기재, 약품, 의료시설 기타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도모한다.
- 5) 회원기관의 경영을 연구 발전시킨다.
- 6) 한국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협동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권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된 한국 가톨릭병원협회의 탄생은 실로 한국에 있어 가톨릭이 그 의료사업면에 강력하게 발전할 신기원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협회에는 7개 병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어 사업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총무

부, 사업부, 학술부등에서 사업진행을 맡고 있다. 학술부에서는 회지와 회보를 일년에 2회 발행하며 봄과 가을에 개최하는 세미나와 보수교육을 통해 기술향상과 교육훈련에 힘쓰고 있다.

3. 활동현황

1967년 9월 창립한 이후 가톨릭의료기관의 자선진료, 가톨릭시중과 인간생명, 병원운영과 인간관계, 지역사회의료, 의료보험, 가톨릭과 인구문제 그리고 병원사목등을 주제로 2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1974 ~ 1975년에는 독일의 미제레울(Misereor)로 부터 \$ 15,385의 사업 보조비를 받았으며 이 보조비는 세미나 개최와 협회지 발행 등 협회운영에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천주교의 구라사업은 「구령을 위한 구라」라는 대명제 아래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의 계승과 증진에 있다. 그 구체적인 예시로서는 8·15 해방 이후 가톨릭구제회의 안캐롤 주교 (Rev. Msgr. George Carroll) (전 본회 총재)가 1950년 6월 2일의 성라자로마을 설립을 들수 있다. 그 후 6·25 동란 발발로 다른 구제사업에 밀린감이 없지 않았다가 1955년 고 스위니 신부 (late Rev. Joseph H. Sweeney)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므로써 새롭게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때 스위니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동진료반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순회진료에 나섰다. 즉 매월 일회씩 안양, 강경, 옥천, 포항, 고성등지를 기점으로 한 5개의 이동진료반은 멀리는 거제도과 울릉도까지 남한의 전지역을 누렸으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전국 재가 나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동진료반의 전진기지였다고 할 수 있는 옥천, 포항, 고성등지에서는 종합 성모병원 발족의 근간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앙인들에 의해 이끌어 가는 천주교 구라사업은 우리나라 나환리사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966년 11월 27일 스위니 신부의 선종으로 마침내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1967년 10월 18일에 창립된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 (회장 : 엠마 프라이징거여사) (Miss Emma Freisinger)는 오늘날 98개 정착마을 가운데 4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연합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병, 의원, 진료소, 요양원과 이동진료반은 우리나라 등록 나환자 28,000여명 가운데 상당수의 나환자가 직접 간접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천주교 구라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릴리회, 라자로마을 돕기회, 미라회, 상록회 등 후원회 조직은 우리나라 나사업의 발전을 약속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1972년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인공유산과 피임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명, 본 협회로 하여금 자연주기법을 이용한 가족계획의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본 협회 산하기구로 신학, 의학, 사회학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행복한 가족연구위원회"가 출범되었다. 한국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은 본 위원회는 본 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서울 성모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목포 성골롬바노병원, 춘천 성골롬바노의원, 대전 성모병원 그리고 수원 성빈센트병원을 비롯한 여러회원 병원이 가톨릭 가족계획클리닉을 설치하고 교육, 훈련, 지도계몽, 조사연구 그리고 교재등을 발간하고 전국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위원회가 의원 요청한 3개년 계획은 비신자를 포함한 50만쌍의 부부에게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방법을 교육할 목표를 세워 제일차 연도에는 3,000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를 강습하고 제2차와 제3차 연도에는 4,500명의 각 본당과 단체의 요원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간 본 위원회는 가톨릭 여성연합회를 위시하여 여러 지역에서 강습을 가졌고 본 협회에서 도 수차례 걸쳐 인구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낙태 불임수술금지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낸 바도 있었다.

1974년 8월 가정생활 증진 국제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Family Life Promotion) 창립을 위한 준비총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25

명의 대표가 참석 창립취지문과 정관의 초안 그리고 가톨릭대표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1976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기법에 의한 가족계획세미나를 가졌으며 콜롬바노수녀들이 참가하였다.

1975년 3월 춘계 한국주교회의에서는 춘천 박토마 주교 (Most Rev. Thomrs Stewart) 를 주교회의 가정사목담당 주교로 임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본 협회산하에 설치된 행복한 가족계획 연구위원회 사업과 춘천, 목포등지에서 실시해 온 NFP (Natural Family Planning) 사업을 통합하고 가정의 성화(聖化)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1975년 5월 28일 14개 교구대표와 관계기관대표 약 40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협의회의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박토마 주교를 총재주교로 추대하고 본 협회로 부터 주교회의 산하기구로 이관되었다. 이 자연가정계획사업은 계속 본 협회 회원병원에 설치된 가족계획클리닉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가정운동 협의회와 같이 가톨릭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가톨릭 병원협회 회원병원이 하여야 할 본 사업은 인구조절보다 높은 윤리적 차원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가톨릭 병원협회의 나아갈길

본 협회가 발족한지도 어언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그동안 가톨릭계 병원들간의 친목을 비롯하여 각종 세미나를 통한 의견교환과 정보의 전달에 힘써 온 보람이 있어 이제는 가톨릭 병원협회의 존립의의를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고 22차례나 개최한 세미나는 우리나라 의료문제중 가톨릭계 병원들의 관심사가 주제가 되어 여러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근래에 와서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 각 가톨릭계 병원은 좀 더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종전의 정기적인 총회나 세미나 이외에 어떤 목적의

식을 가지고 협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유기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협회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의료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해 보고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서로 의논하고 그 실천을 상호간에 고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 유기적인 유대가 형성되면 활동을 하여야 하며 실천을 통해서 유대가 강화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료로 실천하는데 우리 협회에 기대하는 바 크다고 보겠다. 지역사회의료의 해결은 농·어촌이나 무의촌에 의료기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교육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가에 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이러한 조직의 중심처가 되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나라 지역사회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셋째 : 본 협회산하 각 병원에 각각 어떠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일이다. 연구과제는 행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병원기구와 기능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 관심사를 한 병원이나 국한된 몇개의 병원에서만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협회가 매개체가 되어 연구과제를 적절하게 각 병원에 부여하고 이를 종합정리 한다면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맺음말

우리 가톨릭 병원협회는 의료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효과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다.

전국 60여개의 교회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적, 시간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조그마한 의원들이 그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의 계획대로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

가톨릭병원협회 세미나 개최상황

회수	일시	주제	개최장소	참가인원
1	69. 2. 8	가톨릭의료기관의 자선진료	서울성모병원	60
2	69. 7. 11 ~ 12	병원관리의 방법	서울아카데미하우스	50
3	70. 4. 25	가톨릭시즘과 인간생명	서울워커힐	50
4	70. 10. 24 ~ 25	병원관리와 인간관계	대전유성호텔	46
5	71. 5. 15	진료과오	서울로얄호텔	53
6	71. 10. 30	병원사목	서울분도회관	62
7	72. 4. 22	지역사회의학	서울분도회관	52
8	72. 11. 4	교회병원에 있어서의 외원의 역할	대구파티마병원	59
9	73. 5. 12	행복한 가족계획사업	서울코리아나호텔	64
10	73. 10. 27	보건교육	대전유성호텔	50
11	74. 4. 27	의료보험제도	서울분도회관	69
12	74. 10. 26	가톨릭과 인구문제	수원말씀의집	75
13	75. 4. 25 ~ 26	병원관리(인사관리, 재무관리)	서울분도회관	65
14	75. 11. 7 ~ 8	의학윤리	대전유성호텔	78
15	76. 4. 30	행복한 가정운동과 가톨릭병원의 역할	서울분도회관	78
16	76. 10. 22 ~ 23	농어촌 가톨릭의료기관의 의료사업	속리산관광호텔	64
17	77. 5. 6	의료보험	서울상지회관	59
18	77. 10. 28 ~ 29	현행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부산명상의집	81
19	78. 4. 28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	서울분도회관	67
20	78. 10. 27 ~ 28	병원사목	광주피정센타	54
21	79. 5. 25	병원사목	서울상지회관	81
22	79. 10. 19 ~ 20	임종	춘천세종호텔	60
23	80. 4. 19	가톨릭의료인의 역할	가톨릭의대강당	

다. 그러나 명실공히 본 협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희생적 지원이 우리 협회의 오늘을 있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비록 오늘의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병원 역시 그 존재양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용납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병원은 그것이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즉 사랑의 사업, 봉사사업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어느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말과 같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들을 사랑해야 한다.

현대에 와서는 지난날 교회가 맡았던 봉사 및 사랑의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의 손에 넘어가 소위 사회복지사업이란 명칭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추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교회사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와 그 병원의 전통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곤궁자의 피난처가 되도록 노력하며 그 노력이 국민의료의 균점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1면에서 >

회 장 : 1명
 부회장 : 1명
 총 무 : 2명
 서 기 : 2명
 회 계 : 2명
 부 서 : 봉사부, 교육부, 전교부, 친교부 를 둔
 그 후 계속하여 매월 1회 미사 및 월례회를 갖고 월 1회 신자 재교육을 교분 신부님의 지도하에 하고 있다.

사업보고

1. 양노원 방문 : 위문품 및 위안회를 갖음. (에타니아집 20명)
2. 병실 환자방문 : 327명 원목실과 각 병동 수간호원들의 의뢰하에 중환자의 대세 및 임종 준비와 보호자 지도 전교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대세자 및 신자의 임종후 연도와 가족들의 신

앙권유를 하며 이들을 본당 레지아 마리아 회에 의뢰하여 계속 관계를 이어 주고 있다.

4. 환자 퇴원 후 간호
 담당 의사의 지도하에 정규적인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 (주 1회방문 3인)
5. 병원내의 직원 전교
 영세자 4명
 보례자 4명
 예비자 22명
 관면혼배 2건
 조당혼배 1건
 냉담자 3명
 주 2회 통신교리
 고해 성사
 임종미사
 월미사
 현재회원 : 간호원 33명 과 예비자 간호원 13명,
 AN 20명 계 66명.
 이상과 같음.